

천만송이 국화꽃 재배 만전 ‘청년통계’ 개발 본격 착수

심민 임실군수, 10월 8~12일 임실N치즈축제장 장식할 국화 정식 현장 점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확대 개최되는 임실N치즈축제장을 화려하게 장식할 천만송이 국화꽃 재배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심 민 군수가 재배 현장을 찾아 꼼꼼한 점검에 나섰다.

지난 11일 국화 정식 현장을 점검한 심 민 군수는 무더위 속에서 국화 생산 관리에 고생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군은 지난 4월 17일 현애 초형물 정식에 이어 6월 10일 임실N치즈축제 경관을 장식할 화분 국화 정식을 완료했다.

올해 생산되는 국화는 노랑, 핑크, 빨강, 주황 등 7색상 7품종으로 총 85,100주를 사각 화분 20,700개와 원형 화분 23,000개 총 43,700개의 화분에 식재했다.

특히, 전년 이상 고온으로 개화가 10일 이상 지연된 만큼 고온 조건에서도 비교적 개화가 안정적이었던 품종을 집중 배치했다.

또한, 혼합 화분 비율을 전체의 24%까지 확대하고 2색 및 3색 화분 등 색상을 다양화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확대 개최되는 임실N치즈축제를 화려하게 장식할 천만송이 국화꽃 재배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심 민 군수가 재배 현장을 찾아 꼼꼼한 점검에 나섰다.

계획이다.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은 2025 임실N치즈축제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기존 4일이 아닌 5일간으로 확대 개최되며, 한층 새롭고, 더 풍성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전망이다.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임실N 글로벌치즈 푸드페어 △숙성치즈를 활용한 맛있는 디저트공부체험 △국가대표 임실N치즈 대형 찹쌀피자 △별기에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새롭고 완성도 높게 준비하고, 특히 저지종 숙성치즈와 무가당 요거트 활용 프로그램을 한층 확장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금년은 10월 초에 길게는 10일간의 황금연휴가 있다”며 “축제 시작은 10월 8일부터지만 10월 3일 연휴 시작 전 국화 전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수관 및 개화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화꽃이 만개한 일에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시, 농생명 산업지구 조성사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공모… 스마트팜 교육·실증단지

남원시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공모한 ‘농생명 산업지구 조성사업(스마트팜 교육·실증단지)’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은 농생명 산업지구로 지정된 3개 시군(남원, 진안, 고창) 중 2곳만이 선정되는 경쟁 속에서 이뤄낸 성과로, 남원시의 청년농 육성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스마트팜 교육·실증단지는 남원시 대산면 일원 4.2ha 부지에 조성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도비 25, 시비 25)이 투입된다. 규

모는 온실 0.5ha와 노지 0.9ha의 실습 재배 공간으로, 농생명산업지구 입주 희망 청년농(靑年農)과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뤄질 예정이다.

남원시는 사업을 통해 청년 청년농의 영농기술 숙련도를 제고하고, 수료자에게는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및 창업단지 입주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지역 속적인 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증시설을 활용한 기술 연구

와 데이터 축적을 통해 농생명 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스마트팜 교육장은 단순한 교육장을 넘어 청년농의 영농 초기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천형 훈련 공간으로 가능하며,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 남원 글로벌캠퍼스와 연계한 멘토링·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교육시설 확보를 넘어, 스마트농업의 인재를 남원에서 길러내겠다는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도와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백향과, 남원 대표 특산물로 자리매김

남원시가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역 농업과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백향과(배선푸르트)를 집중 육성, 남원시 대표 특산물로 자리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남원시는 2022년부터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의 일환으

로 백향과 재배를 본격화했다.

특히 남원의 일조량과 큰 일교차는 백향과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현재까지 16농가(2.5ha)에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단순 생산에 그치지 않고 ‘원푸드(One Food)’ 브랜드를 통해 백향과를 활용한 가공식

품과 체험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향과를 활용한 파이, 샌드, 버터, 그릭요거트, 막걸리, 애사비, 아이스할렘 등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식품 제조가공업체와의 협업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춘향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체험 부스 운영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 위해 추진

순창군이 지역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청년통계’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통계는 군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지역특화통계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말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군은 정확한 통계 기반의 정책 수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통계청과 협력해 지역특화통계 개발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역민 생애주기 중 교육과 노동시장 진입·유지 과정을 거쳐 경제·사회적 삶의 질이 결정되는 ‘청년기’에 주목해 청년층 대상 지역통계 개발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청년통계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입부자료를 연계·가공해 작성하는 ‘행정(가공)통계’ 방식으로 추진되며 군은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지표를 우선 선별하고, 이를 통해 청년의 삶과 관련된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4월 호남지방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 협의회를 통해 인구·경제·일자리·창업·복지·건강 등 6개 부문, 총 79개 지표 선정을 마쳤다.

또한 ‘순창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2024년 12월 말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세부터 49세까지 넓은 범위의 청년을 대상으로 통계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통계는 지역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을 진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과 의견 수렴에도 유용한 기반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 인구의 유입과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청년통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순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금동, 1일 1가구 소통행정 나서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밀착형 복지 실현을 위해 ‘1일 1가구 소통행정’으로 독거 어르신, 중장년 1인 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관내 주민들을 방문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해 지역 주민들의 안정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 대비 취약계층 보호 및 대응 계획을 세우고 현장 예찰 활동인 동장이 직접 태으로 찾아가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관내 독거 어르신, 취약계층 가구,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행동요령 안내문을 배부하고, 관내 아파트 게시판에도 부착했다. 동시에 무더위 쉼터 14개소의 냉방기 작동 상태



와 환기 시스템을 사전 점검했다.

또한, 더운 날씨에 외부에서 근무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문 배부 및 교육을 실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탈수 방지를 위한 생수를 전달하며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주니어보드, 장수군과 혁신 문화 교류 가져

임실군 주니어보드가 최근 장수군 주니어보드와 공동으로 혁신 문화 교류를 위한 ‘주니어보드 합동 워크숍’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임실군과 장수군 주니어보드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교류의 장으로, 서로의 운영 노하우는 물론 다양한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청년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임실군 주니어보드는 꿀팁 모음집, 과 서무의 모든 것 발간 등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과제와 성과들을 소개하며



청년 공직자가 제시하는 혁신 행정의 긍정적인 효과를 공유했다.

또한, 2년 넘게 쌓아온 다양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문화 개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지속 힘쓰겠다

/임실=진종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희망복지지원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약

남원시 희망복지지원팀은 남원 사회복지관(관장 강정아)과 (유)보은건설(대표 문봉근)은 지난 11일 취약계층 주거 환경개선 및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과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문봉근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노후주택 개·보수와 안전점검 등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 복지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강정아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길 기대한다며, 보은건설과 힘을 합쳐 더불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이동식 소화수조·질식소화 덮개 훈련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이동식 소화수조 및 질식소화 덮개 운영 숙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등록 대수가 900대 이상인 시·군에 대해 이동식 소화수조를 추가개 배치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남원시에도 소화수조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2024년 말 기준, 남원시에는 약 1,501대의 전기차가 등록되어 있어, 화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안동춘 대응예방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천 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윤권 장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장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A)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에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